

실물경제 불확실,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③
지금은 위험은 분산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대신[Balance] 톡톡펀드 랩

오늘의 날씨 | 맑음 | 7℃/20℃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음력 9월 11일)

www.christiandaily.co.kr

제 1154호

"자기가, 말은 안했지만
와이셔츠 다림질 참 힘들어!"
오늘, 아내의 속마음을 가늠해보세요. 와이셔츠 세탁서비스

구독신청 02-722-8165

교황, 김정은 초청하면 방북하겠다 약속



文대통령과 교황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청 공식방문 이틀째인 18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Francesco) 교황을 예방했다. 베드로광장을 가로질러 캄파네 문을 통과해 교황이 공식접수실인 교황궁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궁내원 궁정장관인 간스바인 대주교로부터 영접을 받았다. 교황궁내원은 교황궁 안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교황 알현 등 의전 절차를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교황단 입구에 서는 교황 의장단의 영접 행사가 진행됐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 가운데는 통역을 맡은 한현택 신부이다. 교황과의 단독 면담은 통역 외에 누구도 배석할 수 없는 교해성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교황은 4개 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날 면담에서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했다.

© 청와대 제공

교황과의 만남에서는 배석자가 없는게 원칙으로, 통역 등 의사소통을 위한 최소한이 배석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교황은 외부 인사와의 만남 때 나눈 대화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수행원들은 2층으로, 김정숙 여사는 ‘배우자의 방’으로 안내되어 문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이 끝나는 동안 대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궁 ‘tronetto 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첫 인사를 나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나 뵈게 돼서 반갑다”고 인사를 건네자 문 대통령도

“만나 뵈게 돼서 반갑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교황청을 방문했지만 ‘티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면서 “‘주교시노드’(세계 주교대의원회의)기간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하게 해 주셔서 배려에 감사

다”고 말했다. 통역만 배석한 채 면담이 진행되었다. 통역은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대전교구 소속 한현택 신부가 맡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교황께서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따뜻한게 맞아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 공동번영을 위해 늘 기도하며 한반도 정세의 주요 계기마다 축복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위원장에게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으며 교황을 만나 뵈 것을 제안했고 김위원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적극적 확대의사를 밝혔”며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교황께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그동안 교황께서 평창올림픽과 정상회담 때마다 남북평화 위해 축원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고 전하자 교황은 “오히려 내가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황은 “김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는 문대통령의 질문에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또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중인 한국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위원장에게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으며 교황을 만나 뵈 것을 제안했고 김위원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적극적 확대의사를 밝혔

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개인적으로는 ‘티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로서 존경하는 교황을 직접 뵈게되어 큰 영광이라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유가족 및 위안부 할머니, 꽃동네 주민들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고 교황은 “당시 한국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 위안부 할머니들이 맨 앞줄에 앉아있었다”고 회고했다.

예방 진료 후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께 수행원들을 소개하고, 교황을 위해 준비한 최정대 작가의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의 모습과 성모마리아를 형상화한 작품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말하자 교황은 “감사하다. 너무 아름답다”고 화답했다. 교황은 올리브 가지와 17세기 베드로 성당을 그린 그림, 그리고 본인의 저서를 선물했다. 교황이 “성덕과 복음, 기쁨, 생태보호에 대한 저의 책들을 드린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번역해 놓은 교황님 책을 다 읽어봤다. 원어대로 번역된 건지는 모르지만, 교황님이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반 위에 있는 비둘기 모형과 묵주를 우리 측 수행원들에게 선물했다.

교황은 마지막 인사로 “대통령님과 평화를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고 말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님은 가톨릭의 스승일 뿐 아니라 인류의 스승이다”라고 작별 인사를 나눴다.

접견을 마친 후 바로 이어 국무원장 겸 건설로 이동해 어제 만찬을 주최한 파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회담을 나누는 것으로 바티칸의 공식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공동취재단

“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생각하다”

한국교회법학회, 제22회 학술세미나 개최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 5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 내렸다. 재판관 6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 각하의견을 냈다. 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불합치 결정이 지속돼, 입법자는 조속히 병역법 제 5조 1항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들끓는 와중에 제 22회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가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사랑의교회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우선 서한재 교수는 한국교회법학회를 소개하면서 기조발제 했다. 그는 “병역법 8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명시했다”며 “지금까지 병역법 위반 처벌에 3만 명이나 되고, 형량은 총 3만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그래서 이들은(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의 명령에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한다”

며 “하지만 현재가 편리한 양심의 자유란 국가가 최소한만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지, 그것이 권리가 돼서 대체 복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헌법 재판소는 대체 복무 허용했고,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사안이 나올 것을 예상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병역 거부 하는 사람의 양심만 양심인가?”, “병역 거부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란 도대체 무엇인가?”란 문제제기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술세미나의 첫 번째로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그는 “현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영원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특정 종교나 교리의 보호는 아니”라고 전했다. 즉 그는 “현재 입장은 여호와와 증인 같은 특정 종교나 교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제 19조)와 종교의 자유(제 20조)는 별도의 조항에서 각각 보장되는 별개의 권

리로 인식될 수 있다”며 “그러나 둘을 아울러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유로 그는 “현재 널리 통용되는 양심이라는 용어는 작은 마음을 뜻하는 윤리적 기준·능력으로 법률에서 쓰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와 구분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래 통용하던 conscience의 번역인 양심(良心)을 쓴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자칫 ‘비양심적(부도덕)’인 것으로 오인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거부를 단순히 거부하는 게 아닌, 짐총 등 군사훈련을 대신하는 대체복무를 마련해 달라고 국가에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로, 그는 병역법 제5조 1항을 제시하며,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열거된 병역들이 모두 군사훈련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대체복무를 도입해 병역종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현재는 판결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일각에선 대체복무제 도입시, 국방력 유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선필 교수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라 국방력 저하 및 병역의무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연평균 600명 내외였다”며 “현재는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절차,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 형평성을 확보한다면 600명에 다소 늘어난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 병력이 감축하더라도 국방력에 힘 있는 수준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만의 경우를 들며, “1990년 60만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했다”며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래 중국과 적대관계가 개선되고 국방정책이 현대화로 바뀌에 따라, 대만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했고 그런 경로의 하나로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징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현재 여호와와 증인에게서 나오고 있다. 이처럼 특정 종파에 혜택을 주는 문제, 이에 따른 종교적 갈등, 국방력 약화, 현역복무자와 형평성의 문제 등을 참작하여 국회 입법자들은 어떻게 대체복무제를 설계할 수 있을까?

음선필 교수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의원발의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전제할, 박주민, 이철희 이용주 의원 등 대부분의 의원들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업무와 재난 복구·구호 등 공익 관련 업무를 제안했다. 다만 특이점은 이종범(새누리), 김학용(새누리)의원은 치위저계 등 평화증진 업무를 추가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거부”라며 “병역 거부 자체와 징총병역의 거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그는 “평화를 중시하는 양심상 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징총거부는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징총거부자로 일단 입영하도록 하되 이후 통상의 군사훈련과 별도의 기본교육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전투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경우 복무기간, 형태, 내용 측면에서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일례로 그는 아르메니아 대체복무법 제 2조를 제시했다. 그는 “제2조는 대체군복무와 대체노동복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는 전투수행 및 무기휴대 사용과 관련되지 않는 군복무를 의미하

고, 후자는 군대 밖에서 수행하는 노동복무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전자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무기휴대사용을 용납하지 않는 자에게 해당하며, 후자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일체의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는 자에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 번째로 명재진(총대 로스쿨 원장)이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위헌논쟁’이라는 주제로 발제에나섰고, 서한재 교수가 대독했다. 학술세미나에 앞서 1부 예배 순서로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가 마태복음 16:13-19절을 설교했다. 그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따른다”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더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따르는가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회의 생명법인 예수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잘못된 문화, 법을 용납지 말아야 한다”며 “율법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말씀과 철학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노형구 기자

한기연, 2018 신임 교단장 총무 축하 예배

한국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0월 18일(목) 오전 11시 군포제일교회(권태진 목사) 2층 비전홀에서 2018년 신임 교단장 단체장 총무(사무총장) 취임감사예배 및 축하예식을 가졌다. 39개 회원교단과 10개 단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진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식은 김효종 목사(공동회장)의 기도와 박만진 목사

(총무협 회장)의 성경봉독, 김요셉 목사(초대 대표회장)가 “십자가의 정신으로”(골1:20)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동성 목사(대신 직전총회장)가 ‘신임교단장과 단체장 총무를 위하여’, 박재운 목사(개혁 총회장)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박요한 목사(합동회와 총회장)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권태진 목사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

해’ 제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축하예식은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가 환영사를 전한 후 서기 김병근 목사가 신임 교단장과 단체장 총무를 소개했으며, 대표회장이 신임 교단장 단체장 총무(사무총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어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격려사를, 한장총 상임회장 송태섭 목사가 축사를 각각 전했으며, 군포제일교회 여

성증장단의 축가가 있은 후 개혁개신 총회장 박만수 목사가 답사했다. 이날 축하예식은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가 신임 교단장과 총무를 모두에게 전달하는 선물을 진리 총회장 총종자 목사와 개혁총무 정광식 목사가 대표로 받은 후 법인이사 원종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설교를 전한 김요셉 목사는 “한국교회

모두 지도자로 불리는 우리들 책임”이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일이며 자기의 프레임은 구축하는 데 혈안이 되어 한국교회를 좌지우지하며 회생시키는 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환영사를 전한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새로 직임을 맡은 총회장 총무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면서 “교단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한국기독교연합회와 함께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한 특별한 사명과 책임

을 잘 감당함으로써 오늘의 한국교회에 담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축하예식에 앞서 제7-1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려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 목사)을 신규 회원으로 인준했다. 이 자리에서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최근 한교총과의 통합 진행 상황을 총대분들에게 보고하고 양측 대표간에 합의한 대로 11월중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요청했다.

박용국 기자

2.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 사이 이성애(異性愛)로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창조질서에 어긋난다.

결혼제도는 인간이 만든 문화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이다.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하나 창조질서는 보편적이며 영구적이다. 가정이란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성립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창 2:24).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 논의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생략하고 있다.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에 역행한다.

3. 성경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야기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본보기다.

창세기 19장 1-8절은 동성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기록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의 전형

인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금기하시는 행위임을 드러내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베드로후서 2:6). 사도 유다도 소돔과 고모라 주민의 가증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같이 해석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1:7).

4. 동성애 행위란 신성한 가정과 인간 영성의 파괴다.

레위기 18:2-20:17은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금령이다: “나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 “누구든지 여자와 교합

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을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영성(靈性, spirituality)에 있다. 인간에 있어서 영과 몸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기(하나님의 호흡)를 불어 넣으셔서 인간이 산 존재(a living being)가 되었다. 이 영성은 성적 신성함으로도 표현된다. 성적 신성함이란 독신이든지, 이성(異性)인 짝인 반러자와의 한 몸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표현된다. 동성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가정의 신성함이 무너지는 것이요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5. 사도 바울은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난다(역리, 逆理)고 정의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있었던 동성애에 관하여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 1:26-27). 바울이 이 구절에서 성(性)질서에 관하여 언급하는데 순리(順理)란 이성간의 관계를 말하며 역리란 동성간의 성관계를 말한다.

6. 동성애 문제는 결혼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이지 문화적 문제가 아니다.

여성안수 문제는 문화적 문제이지만 동성애 문제는 결혼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교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동성애 문

제는 사회를 존속케 하는 가정의 질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기독교인의 아디아포라(adiaphora, 비본질적인 것들)로서 개인의 자유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판넨베르크(Wohlfahrt Pannenberg)도 동성애에 관하여 아주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동성애 결합을 결혼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가 아니다.” (Christianity Today, November, 1996).

7. 동성애자들에게 진정한 인권 회복이란 탈동성애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로부터의 탈출이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침묵하며 시대적 조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을 가지고 동성애 행위는 죄라고 지적하되 동성애자의 인격에 대해서는 깊은 동정과 긍휼의 마음을 지

니고 저들이 탐닉된 관습에서 치유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사도 유다의 서신도 오늘날 마지막 때의 성적 혼란의 시대상을 예언적으로 들려준다. 정욕대로 행하며 조종하는 자들이란 오늘날 동성애자들과 저들의 지지자들을 지시한다.

동성애자들을 멸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된다. 단지 동성애 자체는 성경이 금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가증한 일”(?????, 토에바, detestable)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자.

하나님의 치유 능력, 사랑과 긍휼로써 저들을 동성애라는 불에서 끌어 내어 구원해야 한다. 글=살롬을꿈꾸는나비행동 제공

섬김으로 받은 복 (열왕기하 8장 1절 ~ 6절)

본문 열왕기하 8:1-6

1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 로 이 땅에 칠 년 동안 임하리라 2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칠 년을 우거하다가 3 칠 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4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5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6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소임을 감당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과 같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믿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장재호 목사

를 드리거나 기도회를 갖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집집마다 심방을 하면서 양떼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시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게하시라는 시종과 함께 양의 가족에 쓴 두루마리 성경을 어깨에 지고 축조 전도 심방을 다닐 때에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곳은 다분산 밭 서남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서 80km 더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엘리사가 이곳을 지나다가 한 귀부인을 만나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왕하4:8).

간권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권했다는 말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기어코 자기 집에 방문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접을 잘 받고 예배도 드리고 떠날 때에 그 여인은 이 근처로 방문목회를 위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자신의 집에 들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도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시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왕하4:9-10)”했습니다.

이때 집 안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방을 만드는 일에 남편이 꽤히 승낙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 여인의 신앙 인격과 신뢰만한 행동, 예절이 남편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 곳에 들렀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사는 이 여인의 지극정성에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여인에게 하늘의 소망과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주셨고 그 여인을 통해 엘리사가 편히 쉬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지만 그 여인의 정성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시켜 그 여인을 오라 해서 혹시 왕이나 장관에게 무슨 무박을 하고 해결받을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때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쁨부음을 받던 때라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절대 그런 일은 없으며 우리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답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요”하니 게하시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내년 돌이 되면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당황스럽고 믿겨지지 않았지만 내년 돌이 되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얻게 된 아들이 자랐다고 했으니 3~4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반나절을 앓다가 죽습니다. 이때 수넴 여인은 그 죽은 아들을 2층 엘리사가 사용하던 방에 눕히고는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발을 잡고 통곡을 합니다. 열왕기하 4:28에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를 시켜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빨리 가서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굳

이 가지 않아도 지팡이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의 뒤를 따라 그 여인과 함께 아이에게로 갑니다. 가는 길에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얹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 위에 얹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재채기를 7번하고는 눈을 떴습니다.

그토록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고, 또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부활신앙의 믿음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후로도 지속적으로 엘리사의 양떼로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 로 이 땅에 칠 년 동안 임하리라”고 합니다. 이 백성의 죄 값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살리는 체면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 많은 재산을 그대로 두고 약간의 돈을 챙겨 엘리사가 떠나라고 한 블레셋 땅으로 떠났습니다.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7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지났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는 아들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수넴 여인은 자신의 전토를 다른 사람이 경작한 것을 보고 그것을 되돌려 받기 위해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이적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수넴 여인이 이같은 상황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껏 말한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제껏 게하시를 통해 들은 이야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는 그 여인을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습니

다. 이 수넴 여인은 어쩌서 이런 요긴한 복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9에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집중력과 성취감을 높여주는 스크래치 북의 매력에 빠져 보세요!

나이트 뷰 인 스크래치 북
아름다운 세계의 도시

마이 페어리 테일 인 스크래치 북
그림이 아름다운 동화

보태니컬 가든 인 스크래치 북
마음에 위안을 주는 꽃과 시

더 조디악 인 스크래치 북
나와 당신의 운명, 별자리

패키지 구성

도안 12장 + 스크래치 전용 펜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세요. | 문의 전화 02-724-7851

Style**